

시선

사설

후마 개편, 선부른 낙관보다  
신중한 대비로

후마나티스칼리지(후마)가 교육과정 개편에 돌입했다. 단순 강좌개편에서부터 자연과학분야의 중핵교과 신설에 이르기까지 출범 5년 만에 맞이하는 대규모 개편작업이다. 그 중에서도 새롭게 신설되는 ‘독립연구’와 ‘자유교양학 트랙’은 대내외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독립연구와 자유교양학 트랙은 후마가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야심찬 실험이다. 이 둘은 학생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스스로의 교육을 디자인해간다는 점에서 국내 대학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창의력이나 융합사고력 등이 작금의 교육계에서 중요한 화두인 만큼, 견고하게 짜인 기존 전공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학문적 소통을 담보할 수만 있다면 이 시도들은 경희 교육철학의 위상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독립연구와 자유교양학 트랙이 ‘기존 전공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학문적 소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시도는 미국의 리버럴 아트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나 영국 옥스퍼드·케임브리지의 도제식 개인교습(tutorial/supervision) 등과 같은 다양한 사례를 연상케 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소수 학생에 대한 교수의 직접 지도’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교수와 학생이 일대 일로 만나 교육이 이뤄지는 옥스퍼드·케임브리지의 사례는 물론이거니와, 미국 최고의 리버럴 아트 칼리지로 꼽히는 애크스트, 윌리엄스 칼리지도 교수 당 10명에서 30명 이내의 학생을 배정하여 토론식 수업과 실험·실습 등을 교수가 직접 지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은 종교, 철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인문사회학을 지도받으며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의 기반을 다져나간다.

현재 후마가 선택한 방향은 그동안 우리 대학이 표방해온 교양교육의 철학에 부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에서 완전히 안정화되기까지는 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 집중 학습과 다양한 커리큘럼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당장 소형강의와 대형강의 비율이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점, 전체적인 강좌 수가 축소되면서 학생 선택의 폭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강좌’의 개설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공간 및 기자재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 등 현실은 그리 녹록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학교는 젊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두뇌에서 튀어나올 다양한 커리큘럼과 연구주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해외사례와 같이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춘 정책을 기반으로 학생의 창의력과 의욕을 최대한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물음들에 대해 자신감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면, 우리는 큰 이상이 결국 구호로서만 그치고 말았던 자율전공학부의 선례를 또 다시 답습하게 될 지도 모른다.

좋은 취지가 좋은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익히 지켜봐왔다. 이제 세롭고 커다란 변화 앞에서, 선부른 낙관보다는 신중한 대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이번 개편작업의 성공을 바라는 진정한 자세일 것이다.

체대, 결산서 공개했지만  
학생 여론은 여전히 ‘싸늘’

미디어 여론동향 2016. 02. 29 ~ 0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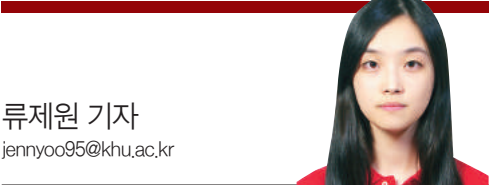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체육대학 학생회에서 대자보를 통해 공개한 오리엔테이션 참가비 결산서가 학생들의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경희대\_체대, 2016.3.9)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공식 계정 명의로 올라온 해당 글에서 대나무숲 운영진은 ‘제보시트를 통해 받은 체대 관련 사진’이라며 공고 대자보 사진을 공개했다. 체대 학생회 명의로 작성된 해당 대자보에는 오리엔테이션 참가비 결산서 표와 함께 ‘위 영수증은 체육대학 학생회실에 보관중입니다’라는 글이 적혀있다. ‘좋아요’, ‘화나요’, ‘웃겨요’ 등 총 119개의 이용자 반응을 모은 이 글에서 학생들은 ‘왜 영수증을 안 보여주고 학생회실에 보관하는가’, ‘체대학생회 분들



이주의 주제 - 김밥 납품업체 유통기한 허위 기재

생협은 초기의 ‘신뢰’를 되새겨 봐야 한다



류제원 기자  
jennyoo95@khu.ac.kr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주다. 대학생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의 주거문제를 비롯한 삶의 질이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식’의 문제를 학내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특히 생협 매점은 짧은 쉬는 시간과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다.

생협은 조합에서 창출한 수익을 다시 조합원들에게 돌려준다. 따라서 단순한 이윤 추구를 위한 사업체와는 궤를 달리한다. 생협의 최종 목적은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이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는 지난 2003년부터 생협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

그런데 최근 생협의 이러한 신뢰성의 기반이 흔들릴만한 사건이 연속 발생했다. 먼저 작년 7월 생협에 김밥과 샌드위치 등 일일식품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유통기한 허위 기재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우리학교 생협은 즉각 거래 중단을 했으나 3개월 이후 해당 업체와 재계약 했다. 학생들이 많이 찾는 삼각김밥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곳 뿐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생협이 추구하는 바가 단지 ‘저렴한 가격’에만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지, 혹은 그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업체와 거래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다.

이 무렵 같은 업체에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올해 2월, 해당 업체에서 지난해 8월에 생산한 식품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다가 걸린 것이다. 당시 생협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문제가 된 기간 동안 해당 업체에서 식품을 납품받지 않아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생협의 태도는 실망스러울 정도였다.

주머니가 얇은 학생들을 배려해 그만큼 값싼 식품을 공급해주지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 값이 싸다면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것인가?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태도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당연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오랜 기간 신뢰를 다져온 생협의 본질을 다시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다행스럽게 지난 7일 생협은 ‘총학생회의 김밥 납품업체 관리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문제가 된 업체와의 거래를 14일부로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식품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마련하고, 제품을 심의하는 전담기구 설립을 계획해보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생긴 이후라는 점에서 다소 늦긴 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생협은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단순한 매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캠퍼스에서도 생협의 존재 여부를 두고 오랜 기간 동안 이슈가 되어 왔으며 학내 주요 공간에 생협이 입주해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던 것이다.

생협이 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길 바란다. 생협은 출범 초기에 내세웠던 그들 스스로의 존재의의를 되새겨야 한다.

한 사람의 ‘날갯짓’은  
많은 것을 바꾼다

세시봉

이시은 <편집장>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는 물리학 개념이 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과장스런 비유다. 혹자는 이를 두고 미미한 영향력의 확대해석이라고 절하하기도 하지만 이론이 함유하는 내용은 우리가 종종 마주하곤 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지난 1월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치며 기자들의 관심을 한눈에 끌어왔던 학점포기제도 이슈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논란이 오간 끝에 ‘4년 유예’라는 결론이 났다. 과거 다른 학자요구안에 밀려 ‘일괄적용’이라는 허점이 생겼던 제도가 이번 결정으로 학생들에게 좀 더 긍정적으로 돌아온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총학생회와 교직원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한 학생’의 목소리였다. 복학 후 제도에서 문제점을 느낀 강정수(경영학 2009)군은 학교 측의 ‘이미 이야기가 끝난 사항’이라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생각한 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개인적 대응은 물론 총학생회, 학내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냈다.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제도가 갖고 있던 허점’이나 ‘길었던 논의과정’ 같은 게 아니다. 이 사건은 잘못된 학내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의 움직임을 보였던 학생 개인의 ‘의지’와 이를 도왔던 몇몇 학생 기구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는 사안이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

적극적으로 문제에 ‘직면’하자

학교는 수많은 조직이 얹혀 움직이는 곳이다. 제 아무리 유기적인 기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허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다. 보통 이럴 때 학생들은 ‘학교’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곤, ‘개인의 약함을 느끼며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곤 한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한다고 무언가 바뀌나?”, “어차피 학교는 똑같은 것이다” 등, 학교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씁쓸함 섞인 자조다.

하지만 이번 학점포기제도 유예로 개인이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움직인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바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과정 속에서 학생 대표기구와 학내 언론들이 개인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개인의 목소리가 겹치고 겹쳐, 큰 문제를 움직여갈 수 있는 연료가 된다면 개선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갖가지 학사관련 제도는 물론 수강신청, 유사학과 문제, 프라임 사업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굵직한 과제들이다. 모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에 직면하자. 학생이 오히려 문제를 좌우할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진 ‘나비효과’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혜경 | 편집장 이시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3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레기화)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3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현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